

음주 운전 후 경찰에 적발된 강원 FC 골키퍼 김정호는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3일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강원도 김정호 선수가 K리그 공식 경기에서 60일간 출전 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활동정지'는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거나 K리그의 가치를 훼손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단기간 내에 처벌위원회를 심사하기 어려운 경우 60일(최대 90일) 동안 K리그 관련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입니다.[토토사이트](#)

그 결과, 김정호는 먼저 경기에 참가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며, 추후 열릴 처벌 위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앞서 13일 강원도는 공식 SNS를 통해 "김정호가 11일 아침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발표했습니다.[파워볼사이트](#)

강원은 "김정호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한 후 곧바로 한국프로축구연맹에 알렸고, 연맹은 K리그 규정에 따른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의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단은 규정에 따라 최대한 빨리 사건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유와 상관없이, 클럽의 모든 구성원들은 결승전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이러한 불쾌한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팬들에게 사과드리고 싶습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파워볼사이트](#)

1998년생인 김정호는 부산 아이파크에서 프로에 데뷔한 후 2021년 강원에 입단했습니다. 강원에서 총 9경기에 출전했지만 이번 시즌에는 출전하지 못했습니다.[안전놀이터](#)

올해 K리그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입니다. 앞서 K리그2 FC 안양 조나단과 K리그1 수원 FC의 라르스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나란히 팀에서 방출된 바 있습니다.[토토사이트](#)